

인천광역시

계양구,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계양구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9월 24일 밝혔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예방접종은 ▲소 400두(소전염성비기관지염) ▲닭 60,000두(뉴캐슬병) ▲개 1,500두(광견병) ▲돼지 2,500두(돼지열병, 돼지열병·단독혼합) 등 총 64,400두가 대상이 된다.

시술방법은 뉴캐슬병은 사육농가에 예방약을 공급해 농가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경상남도

환절기 가축관리 주의 당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환절기 가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가축 질병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환절기 가축에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 질환 예방과 지난 여름동안 기력이 떨어졌던 가축의 체력회복을 위한 적정 사료공급 등 가을철 가축 중점 관리요령에 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일교차가 10℃ 전후가 되는 환절기 가축 질병 발생이 많아지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가축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사 불균형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닭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사 주변 소독과 차단방역이 선행되고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절기 온도와 환기관리, 방역·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 양계장 온도 유지를 위해 밀폐할 경우 내부에 암모니아가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와 배설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울진군, 음식물쓰레기 곤충이용 퇴비화시험 성공

경북 울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험 연구포장에서 동애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무항생제 토종닭 현장적용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동애등에는 파리목 동애등과 곤충으로 파리와 달리 음식물을 섭취후 역류시키지 않아 병을 매개시키지 않은 좋은 곤충으로 분류된다.

유충 50만마리가 3일동안 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 분해능력이 우수하고 번데기의 경우 항균물질을 함유해 무항생제 토종닭 및 양식어류 사육용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이번 시험 연구는 지난해 12월 울진군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간에 체결된 연구협약의 최초 성과물이다.

이와 관련 센터는 신기술 조기 보급을 위해 하

반기 시범사업으로 농가 2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무항생제 토종닭(양어) 사육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및 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태등을 활용한 산업화 기술의 개발 보급과 신기술 과학영농의 조기 보급을 통한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 마련

소·닭·돼지 등을 기르는 축산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전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축산업 개방에 대응, 2008년 전국 처음으로 선포한 바 있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을 마련,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업규모 및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농가를 명시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표시 및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이 조례안을 통해 마을의 낡고 오래된 축사도 쾌적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명기구 설치, 축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축사 정보기술(IT) 구축 및 면역력 증강

을 위한 가축 운동장 구입비 지원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조례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업체에서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1월까지 도의회에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연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친환경 녹색 축산의 실천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사육방식을 2015년까지 '평사'(바닥 기르기) 또는 방목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산란계 사육 실태 조사 결과 145 농가에서 53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철망 사육농가는 106곳, 평사 농가는 3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안팎 축사 외곽이전 유도키로

전라남도는 악취 발생과 폐수 배출 등으로 인해 마을 주거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축사들을 마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을로부터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500m 이내, 한우와 기타 가축 축사는 100m 안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전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나 녹색축산육성기금·농어촌진흥기금 같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북방철새 이동 따른 AI상시 방역활동 강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북방철새 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한 상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올 상반기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이 사람에게 의해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가 방역교육에 이를 적극 홍보해 질병 전파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특히 북방 철새 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농장내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철새의 접근방지를 위해 방조망을 설치하는 한편 야외에서 키우는 가금류도 가급적 축사 우리에 가둬 사육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예방접종 실시와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양축농가에서도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실천과 의심가축 발견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도 축산기술연구소 본·지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에게 지난 9월 2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종윤 익산농장 대표와 이종한 금오농장 대표, 박승언 신촌농장 대표 등 주민 대표 8명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정 전 장관 개인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대표 등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준 정 전 장관께 정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익산 왕궁축산단지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도 “당연히 왕궁축산단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 지역이 깨끗한 생태환경 지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에 왕궁축산단지 오염 해결을 약속했고, 그의 요청으로 정부는 2015년까지 1천159억원(지방비 435억원 포함)을 들여 왕궁축산단지 일대를 친환경 생태숲으로 바꾸는 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1949년에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왕궁 축산단지에는 현재 한신인 700여 명을 포함해 2천200여 명의 주민이 돼지 14만 마리와 닭 5만 마리, 한우 790마리를 키우며 생계를 잇고 있는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천톤 가량이 매달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으로 흘러 수질과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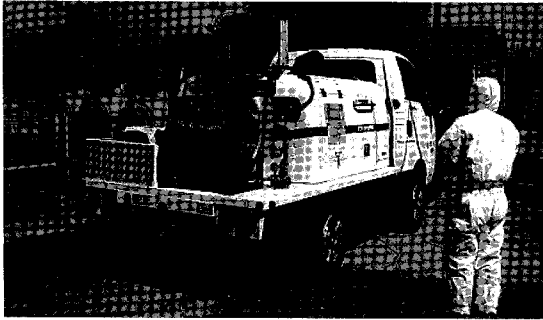
왕궁단지 주민들, 정운천 전장관에 감사패 전달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이 수십 년 간 해결되지 못한 축산단지의 오염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제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닭·오리·철새·야생조류에 대한 광범위한 예찰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일제소독의 날'을 화요일과 금요일 격주간으로 추가 운영하고 가축사료 반입 등이 이뤄지는 한림항에 대한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상주직원을 배치함과 함께 소독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축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통제 강화 지도·홍보 및 축산산업장에 대한 현장예찰 중심의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그리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과 함께 지역가축 방역협의회 운영, 시내 LED 대형 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운영해 역할분담을 통한 민간방역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방역담당자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교육, 해외여행객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체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 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 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십시오.

목적 및 게재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취재문의 : (031)707-5722~4	웹하드(www.webhard.co.kr)
팩 스 : (031)707-5725	ID : chicken PW : 3111
E-mail : hj@chicken.or.kr	→ 닭고기원고 폴더